

노인일자리 통해 생활인구 유치 미래 신성장 전략 개발 본격화

남원시, 남원시니어클럽과 '시니어 관광 홍보팀' 운영... 올해 첫 활동 시작

남원시는 올해 처음으로 노인일자리 전담 수행기관인 남원시니어클럽과 '시니어 관광 홍보팀'을 운영, 세계문화유산의 도시로 자리매김한 남원을 널리 알리며 생활인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노인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올해 첫 활동을 시작한 '시니어 관광 홍보팀'은 다채로운 경험과 지식을 갖춘 어르신들이 남원 홍보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 남원 문화 및 관광지를 관광객들에게 홍보하는 사업으로 체계적 생활인구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남원시는 올해 처음으로 노인일자리 전담 수행기관인 남원시니어클럽과 '시니어 관광 홍보팀'을 운영, 생활인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995건, 1만3,152명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면 홍보를 실시하고, 유선, 유튜브, 밴드운동을 통해 전국 시니어클럽과 각 지역 노인회, 마을자치회, 산악회 및 관광전문 회사와 연계해 지난 제94회 춘향제를 전국으로 홍보하는 물론 시기별 축제, 공연 등을 지속적으로 알리며, 지난 4월 22일 서천군 시니어클럽에서 3일간 1,280여명 노인들이 광한루를 관광하였고, 5월 29일에는 광주특별시 북구노인회 580여명, 6월 18일 경남 고성 시니어클럽 580여명의 노인들이 방문해 남원의 매력을 한껏 즐기고 갈 수 있도록 도와 생활인구 확보에도 기여했다.

또한, 지난 7월 2일부터 운행한 코레일의 레일크루즈 '해랑열차' 관광객들이 남원을 방문하는 날 '시니어 관광 홍보팀'이 직접 남원역으로 나가 환영 인사로 맞이하여 남원 여행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참여하고 있다.

최경식 시장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관광 홍보는 매우 중요한 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역을 잘 아는 어르신들이 남원을 알리는 일에 함께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앞으로 더 활력이 넘치는 남원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마음으로 뛰어들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전략과제 발굴용역 중간보고회 가져

순창군이 미래 신성장을 위한 전략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청사진을 공개했다.

군은 지난 11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순창군 미래 신성장 전략과제 발굴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미래 사업들로, 순창군의 발전상을 그려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지방 소멸 대응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순창기즈핏센터(가칭) △합죽 누리센터(가칭) 등의 정책도 제안됐다. 이는 아동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 맞춤형 결혼·출산·돌봄 통합지원의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구립민 유아종합 학습분원 조성사업의 연장선상에서 군정 10대 목표 중 하나인 '자녀 교육 걱정 없는 순창 교육 백년대계'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 순창군의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이라는 비전과 군민 화합, 지역경제 활성화, 돈 버는 농업, 따뜻한 복지, 정주인구 증대 등 5대 군정 목표를 구체화할 36개의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순창군 발전을 위해 중요한 발견을 내리는 시간이었다.

보고회에는 용역을 담당하는 재단법인 전북연구원의 전문가 6명과 순창군 간부공무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들은 순창군 특화산업인 경주와 웰니스 관광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노인 웰빙시설 조성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강천산 온자실 치유관광 △경천·양지천 생태축 복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특화 청년사업 △공공실버타운 조성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정책들은 순창군의 특

회영민 군수는 보고회에서 "민선 8기의 반환점을 돌아선 지금,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순창군의 미래 일자리와 먹거리를 고민해야 할 때다"면서 "남은 용역기간 동안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정책 구상을 통해 순창군의 미래 발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집중호우 피해 완주군 수해 복구 지원

남원시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완주군 화산면 지역에 침수 농가 주택복구 지원 등을 위해 복구 인력 40여 명이 참여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완주군은 지난 10일 오후 6시 기준 화산면 200mm, 경천면 196mm 등 완주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89건의 침수 피해가 발생, 완주군민 전체가 피해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으로, 신속한 복구를 위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며, 이에 민선8기 남원시 부시장은 화산면 피해 가구의 빠른 회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피해 현장에 도착한 남원시 직원 40여명은 침수된 가재도구 세척 및 토사물 제거, 폐기물 처리 등 주민들의 정상적 생활 회복을 도왔으며, 침수 피해 복구를 지원받은 주민은 "수해 피해로 인해 막대한 상환에 많은 사람이 도움을 손길을 보태줘서 수해복구에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운암교, 야간경관 명소로 재탄생

LED 미디어바 1732개 사용 빛의 폭포 등 이펙트 효과 연출

임실군이 옥정호 운암교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해 야간경관 명소로 재탄생했다.

운암교는 운종리와 마암리를 잇는 교량으로 운암대교 방면에서 바라볼 때 아름다운 옥정호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지만 경관조명이 없어 야간경관이 제대로 연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1,732개를 사용해 빛의 폭포, 물방울 등 이펙트 효과 및 지역 특색을 영상으로 표현하여 옥정호와 어울리는 운암교의 특색있고 세련된 경관을 연출했다.

새롭게 조성한 운암교 야간경관은 일몰 후 오후 10시까지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하며, 이달 28일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치즈테마파크 내 치즈캐슬 부근 약 2,500㎡ 면적에 야간경관 정원을 조성해 LED 전식, 수목 투광등, RGB 조명 등 특색있는 조명으로 다채로운 빛 연출과 은은한 분위기의 변화되는 조명으로 재미를 더해 주고 있다.

심민 군수는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옥정호의 아름다운 풍경과 어우러지는 운암교의 경관조명이 임실의 또 다른 힐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이에 군은 이곳을 찾는 주민·관광객에게 야간에도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총사업비 9억5천만원을 들여 추진했다.

운암대교 방향으로 LED 미디어바

군에 올해 상반기에도 대표 관광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선사하고 있다.

남원시, '제2회 SW·AI Challenge 대회' 개최

남원시는 15일과 16일 2일간 스위트호텔 남원에서 컴퓨팅 사고능력 등 미래인재를 발굴하는 '2024 SW·AI Challenge 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최하고, 전북 SW미래재능센터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공동 주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가 후원하는 대회이다.



물을 구현하는 대결을 펼치게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번 대회에는 도내 초·중·고등학교생 147명이 참가해 소프트웨어(SW)융합을 주제로 기후변화와 고령화, 디지털 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W 역량을 뽐내고 창조적 산출

임실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성과보증 검증 절차 착수

임실군과 한국환경공단이 1년간 상수도 유수율 85% 이상을 유지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성과보증 검증 절차에 착수했다.

군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330억을 투입하여 사업 대상 지역의 유수율을 85%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위탁기

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사업추진에 매진했다.

2024년 6월 기준 유수율이 90.2%로 현대화사업 시행 초기 58.9%에서 31.3% 향상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

2019년부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2025년 11월까지 유수율 85% 이상 달성과 사업 완료 후 누수 손실 금액 연간 28억원을 절감해 상수도 경영 효율 개선 및 수도 요금 인상 요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내년까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성과보증을 통해 목표 유수율 달성과 사업수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제2의 인생 응원' 공무원 퇴임·이임식 가져

순창군은 지난 12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정년퇴직과 퇴직 준비교육 발령에 따라 순창군청을 떠나는 공무원들의 퇴임·이임식을 개최했다.

퇴임·이임 공무원 가족들이 함께한 이날 행사는 퇴임·이임 예정자 소개, 공로패 전달, 송별사, 소감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후배 공무원들도 참석

해 떠나는 선배 공무원들의 제2의 인생을 응원했다.

이날 참석한 8명의 퇴임·이임 공무원들은 공직 입문 이후 평균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온 베테랑들로,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나타내 순창군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문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